

해방기 김기림의 계몽운동론

최명표(전주교육대학교)

1. 서론

해방 정국은 각종 정치적 주장과 요구가 촉출하는 혼돈의 장이었다. 이 민족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감격은 갖가지 주장들로 대체되었고, 정국의 선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집단간의 알력은 도처에서 갈등 국면을 생성하였다. 이 시기의 정치적 결사체들이 저마다 정치적 구호를 앞세우면서 명분을 선점하기 위해 각축했던 이유도, 혼란한 정국을 조속히 평정하여 소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의 소산이었다. 그러나 당시 전인구의 80%에 가까운 문맹률은 국가의 정체(政體)를 설정하는 단계부터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대두되었다.

문맹을 퇴치하지 않고서는 해방의 정치적 가능성을 모색하기가 난망하였다. 문맹의 완전한 퇴치까지는 일정한 시간과 꾸준한 정책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문맹 퇴치 사업을 전담할 정부조차 수립되지 않은 실정이었다. 그런 까닭에 시기상의 긴박성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만한 동력을 갖추기는 어려웠다. 이 점은 문맹퇴치운동에 참가할 만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었던 조선문학가동맹의 정치적 판단을 촉진하는 계기

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문맹 퇴치 사업은 작가들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운동 차원으로 편입되었다.

김기림이 해방기를 맞아 보여준 행적은 이 사업의 추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가 식민지시대부터 간헐적으로 발표했던 민중에 대한 친밀감의 재출현이었다. 그는 공식석상에서 민중계몽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고, 운동의 최전선에 참여하여 지방 순회 대열에 합류하였다. 그러한 움직임은 해방기의 독특한 정치적 지형이 가려진 결과이지, 그가 여느 동맹원들처럼 문맹퇴치운동을 정치적 차원에서 수용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가 특정한 이념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장악한 문학단체에 가입한 사실과 관련되어 오해의 소지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문맹퇴치운동을 위시한 계몽사업을 범민족적 과제이자 지식인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으로 인식했을 뿐이다. 이 점은 강조되어야 한다. 그의 태도는 해방기를 맞아 문맹 상태의 민중들을 계도함으로써, 그들이 소망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건설을 지원하려는 순정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 무렵에 김기림이 주력했던 민중계몽운동의 성격은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그는 동맹의 구호였던 ‘민족문화’ 대신에 ‘민주문화’를 제창하였다. 이것은 동맹의 운동에 내포된 ‘민족’의 배타성을 지양하고, 그의 지론이었던 세계사적 보편성을 구현하는 ‘민주’의 참여적 맥락에 주목한 것이다. 그는 ‘민주문화’를 건설할 물질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민중지향적 시론과 실천, 시조의 중시, 한글 전용 운동 등에 주력하였다. 이 세 가지는 신생 조국의 주체였던 민중의 계몽사업으로 수렴된다. 곧, 그의 계몽운동론은 ‘민주문화’의 수립에 필요한 민중들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천 전략이었던 셈이다. 이 점은 그의 시와 시론 등을 세밀히 점검할 필요성을 배가시킨다. 이에 본고는 해방기에 발표된 김기림의 계몽운동과 관련된 시론에 논의를 집중함으로써, 해방기에 그가 취했던 일련의 선택과 행동들이 신념의 소산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노라면, 그가 진력했던 계몽운동의 성격이

드러날 것이다.

2. ‘민주문화론’으로서의 계몽운동론

2.1. 민중지향적 시론의 전개

해방기 김기림의 관심은 당시의 현안과제였던 ‘민주문화’의 건설에 집중되었다. 그는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정치 집회에 참석하였고, 여러 문우들을 만나며 시대적 특성에 부합되는 일과를 찾았다. 해방 이전부터 정치의식을 간간이 드러낸 바 있었으므로, 그가 이 시기에 문학과 정치의 접점에 대하여 골몰한 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는 시국에 대한 판단과 민중들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문우들의 회합에 참석한 뒤에, 해방기의 특수한 조건을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것은 “아모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새나라 頌」)를 세우기 위하여 민중들의 구체적 삶의 현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지식인의 책무라고 생각한 김기림의 선택이었다. 그의 움직임은 예전의 행동과 다르게 비추어질 수 있으나, 식민지시대에 발표한 평문들을 정밀하게 검토해 보면 일관된 태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김기림의 활동은 신념의 변화를 의미하기보다는, 등단 이후부터 견지했던 지성과 현실 중시의 균형각이 구체화한 것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즉, 그의 주장은 민중에 대한 각별한 애정의 발로였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의 발현이 아니었다.

김기림은 비평 초기부터 서구의 모더니즘에 경도된 주장만 발표한 것이 아니라, 생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했었다. 그는 최초로 발표한 평문에서 프롤레타리아문학과 로맨티시즘의 문제점들을 동시에 지적하고, 시를 “생활의 배설물”¹⁾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 이후에도 그는

1) 김기림, 「시인과 시의 개념」, 『조선일보』, 1930. 7. 24-30; 김학동 편, 『김기림전집·1』, 심철당, 1988, 296쪽. 본고에서 인용하는 텍스트는 『김기림전집』에 의하고, 이하의 인용 표기는 권수와 쪽수를 가리킨다. 단, 논의의 필요상 발표지지를 병기하기로 한다.

“민중의 일상 언어의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발견하는 미와 탄력과 조화”²⁾를 위해 생활을 중시하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피력하였다. 해방은 그뿐만 아니라 민족 구성원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을 안겨주었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동조한 그의 시작 태도는 비판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회현상에 대한 관찰을 게을리 하지 않은 지식인이었고, 시와 생활의 상호관련성을 항시 의식하던 시인이었기 때문이다. 이 점은 그의 시와 비평에 접근하는 동안, 언제나 전제되어야 할 덕목이다.

8월 15일은 분명 우리 앞에 위대한 ‘낭만’(로망틱)의 시대를 펼쳐 노았다. 그러나 또다시 감상적으로 이 속에 탐닉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큰 통찰과 투시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 고전주의도 아니다. 한 상징주의도 아니다. 한 초현실주의도 아니다. 우리는 모든 그런 것을 지나왔다. 인제야 우리 앞에는 대전 이전에 좀처럼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가 탄생하려 하고 있다. 조선은 문을 열고 이 세계와 마조서게 되었다. 이 새로운 세계—「울텍스·혈쓸레」가 빈정댄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정한 한 새로운 찬란한 세계—가 완전히 인류의 것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여러 가지 진통이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먼저 여명의 前哨에 눈을 뜬 사람 또 먼저 번 기이한 발자취에 귀가 밝은 사람들의 꾸준하고도 끈직한 노력만이 참말로 이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제낄 수 있을 것이다. 시의 문제도 실상은 이러한 인류의 문제 속에 무쳐있는 것이다. 시의 문제만을 동따로 찾아 당긴다든지 해결하려는 것은 쓸데없는 일 같다. 인류의 문제를 거쳐서 그 속에서 시의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것, 그 길밖에는 없을 상싶다.

8월 15일 이후 많은 벗들이 나에게 새로운 시론을 보이기를 청했다. 지금 말한 것이 나의 친절한 벗들에게 보내는 나의 생각의 요점이다.³⁾

식민지 시절부터 원주민들의 비참한 삶에 관심을 표명한 김기림에게 해방 조국은 민중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기에 적절한 기회였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낭만적 감정이 충일한 해방기의 특수성과 민중 생활을 관련

2) 김기림, 「피에로의 독백」, 『조선일보』, 1931. 1. 27; 『김기림전집·2』, 303쪽.

3) 김기림, 「머릿말」, 『바다와 나비』, 신문화연구소, 1946; 『김기림전집·1』, 157-158쪽.

시커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말미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인용문은 해방을 맞아 쓴 그의 ‘새로운 시론’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는 세계대전 종전으로 ‘진정한 한 새로운 찬란한 세계’가 대두되었다고 전제한 뒤에, 독립 국가의 수립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통’이 수반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그의 진단은 “새해와 希望은 몸부림치는 民族에게 주자”(『새해의 노래』)는 신념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시대적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합리적이다. 그는 각종 주장이 난무하고 사회적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날 판국에 ‘시의 문제만을 동따로 찾아 당긴다든지 해결하려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고, 앞으로는 ‘인류의 문제를 거쳐서 그 속에서 시의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시인의 바른 태도라고 강조한다. 그는 해방기의 시인들이 ‘꾸준하고도 끈직한 노력’으로 역사의 진보에 대한 신념을 피력하고, 그것을 ‘예술의 성장을 위한 윤리’로 파악하기를 기대하였다. 그가 이때 좌익측에 의해 주도된 문학단체에 가담하여 친일 잔재의 청산 대열에 합류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문단에서 중견시인의 반열에 오른 그는, 해방 조국의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시대적 임무로 인식했던 것이다.

김기림의 주장은 좌우 작가들의 합작단체였던 조선문학가동맹의 발기식장에서 보고한 「우리 시의 방향」에도 나타나 있다. 이 문건은 “해방기 비평의 실제적 국면을 포괄하는 문제적 시론”⁴⁾인 바, 그는 시인들에게 ‘생활의 체험을 통하여 인민의 진실한 모양을 붙잡게 될 것’을 반복하여 강조하였다. 그가 언급한 ‘생활의 체험’은 다수를 차지하는 민중들의 궁핍한 현상을 도외시할 수 없는 시인의 양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민중에 대한 관심은 이 시기에 김기림의 비평적 기반을 지성보다는 구체적 생활 장면에 집중하도록 견인하였다. 해방을 맞아 독립국가로 출범하는 마당에 시인들이 ‘사람의 흘린 피와 더운 입김’을 외면하지 않아야 하는 까닭인즉, 그것이 외세에 의해 강요되었던 민중들의 정치적 소외현상을 반복

4) 최명표, 「해방기 김기림의 시론 연구—우리 시의 방향을 중심으로」, 『한국말글학』 제17집, 한국말글학회, 2000. 8, 394쪽.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인들은 “백성의 소리는 구수하고 眞心이 드러”(『테모크라시에 부치는 노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그들이 구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대중 속에서 나누는 생활의 감정’을 간과하지 않는 민중친화적인 태도를 지닌 시인에 의해 형상화되는 것으로, 김기림은 ‘대중’의 ‘생활’에 배어 있는 ‘감정’에서 ‘眞心’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그가 해방기에 발표한 작품에서는 모더니스트다운 절제 과정이 생략되거나, 집단의 정서를 중시하는 조선 문학가동맹의 성향과 중첩되는 양상이 노출되기도 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보면 “김기림을 모더니스트로 절대화시키는 오류 또한 피해야 한다”⁵⁾는 지적은 경청할 만하다.

문학이 인민의 이익에 연대관계를 맺으려는 것, 따라서 인민의 생활, 그 속에 기반을 두며 그 생활의욕과 감정과 실천에 회적시운다는 것은 문학의 충실한 성장을 위해서도 반가운 일이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문학을 위해서 인민이나 생활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바로 그 역이야말로 진인 것이다. 인민과 그 생활의 희생이나 부정 위에서 번영하려는 문학이 있다면, 이는 한 반민족적 범죄행위임에 틀림없다.⁶⁾

김기림은 ‘인민과 그 생활의 희생이나 부정 위에서 번영하려는 문학’을 ‘반민족적 범죄행위’와 동일시하고, ‘문학이 인민의 이익에 연대관계를 맺으려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가 문학대중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인들의 시낭독을 고평한 까닭은, 시인과 독자간의 괴리를 예방하려는 충심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 무렵에 전위시인이었던 이병철이 「김기림씨에게 드리는 편지」(『예술신문』, 1947. 5. 5)에서 객관적 정세의 악화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품에 상징적 기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묻자, 김기림은 “새로운 시는 더욱 명확하고 단순하고 소박하여야 할 것”⁷⁾이라고 반대하였다. 이처럼 계몽의 대상이었던 민중들에게 문학작품

5) 임규찬, 「김기림과 모더니즘론의 변화 양상」, 『문학사와 비평적 쟁점』, 태학사, 2001, 299쪽.

6) 김기림, 「문학의 전진」, 『조광』, 1948. 10; 김학동, 『김기림평전』, 새문사, 2001, 352쪽.

의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명확하고 단순하고 소박’한 심미적 기준을 제시할 정도로, 당시 김기림의 민중친화적 태도는 비평적 신념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시의 자율성을 철회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정치적 행사에서 낭독시를 발표한 전위시인들의 시집에 서문을 쓸 정도로 시의 현장성에 주목하면서도, 그들이 정치적 열정에 압도될 것을 우려하며 “얼마만한 리리시즘의 습도가 필요한가”⁸⁾를 알기 바랐다. 이처럼 그는 시와 정치의 경계를 분명히 전제했거니와, 그것은 전위시인이었던 김광현(『김기림씨에 대한 일고』, 『신인』, 1948. 3) 등으로부터 비판받는 빌미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해방정국이라는 특수 상황에서도 시의 본질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 위에서 그의 시론은 전개된 것이다.

2.2. 민족적 시형식의 중시

시조는 한국 고유의 장르이다. 시조는 고려 귀족문화의 유산으로 비롯된 것이 분명하지만, 조선 후기에 이룰수록 평민의 참여에 힘입어 형식을 파괴하는 등, 나름대로 자생적 역량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애국계몽기에 붙어 닦친 외세의 침노와 외래 장르의 출현으로 시조의 형식적 속성은 위축되기 시작했다. 마침내 형식의 제도적 보루였던 나라의 멸망으로 인해 시조의 위세는 급격히 저하되었고, 외래의 리듬과 형식이 시의 근대적 자질로 규정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민족의 문학사적 전통을 심각하게 위협하였고, 뜻있는 문인들이 국민문학운동을 일으켜 “시조를 중심으로 한 민족적 문학양식의 부흥”⁹⁾에 앞장선 것이다. 이 운동이 카프에 대한 반동과 1926년 조선어연구회에 의해 제정된 이른바 ‘가가날’의 영향으로 시작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문학사적 사실이다. 이 운동은 시조의 장르에 함의된 민족 정서를 최대한 활용하여 피식민지인으로 전락한 민족의 비애를 위무하면서, 동시에 민족적 시형식의 소생을

7) 김기림, 「이병철군 서한에의 회답」, 『예술신문』, 1947. 5. 5

8) 김기림, 「『전위시인집』에 부침」, 『경향신문』, 1946. 10. 31; 『김기림전집』 2, 149쪽.

9) 김용직, 『한국 근대문학의 사적 이해』, 삼영사, 1982, 46쪽.

도모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헤아리면서 식민지의 정치적 성격을 고려해 보면, 운동의 의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해방은 시조의 중흥을 도모할 수 있는 호기였다. 그러나 시조의 부흥운동은 시인의 수적 열세와 문단의 건설기라는 특수성 때문에 우선순위로 설정되지 못했다. 이때 조선문학가동맹의 출범식장에서 김태준은 “고전의 학습·연구·보급을 가두에, 근로층에, 공장에, 농촌에 널리 진출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¹⁰⁾이라고 보고하여 민족 유산의 계승 문제를 대중화운동의 차원에서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의 주장은 시조를 지칭한 것은 아니지만, 포괄적이거나 문학 유산의 계승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것처럼 이 문제는 “작품의 생산이나 재생산 영역에서만뿐만 아니라 소통과 수용의 영역에서도 중대한 역할을 갖는 것”¹¹⁾이지만, 동맹원들의 논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보다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그와 달리 김기림은 민족의 문학적 유산의 하나로 시조의 중요성을 되풀이하여 강조하였다. 그의 주장은 내부의 비판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해방기라는 역사적 시기를 맞은 민족적 시형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평적 신념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신념을 차례차례로 잃어버린 생활처럼 지옥은 없을 것”¹²⁾이라고 선언했던 김기림의 당연한 선택이었다.

서투른 내노래 속에서
혈벗고 팔시받던 나의 이웃들
그대 우름을 올라 아깍업시 올라
慣을 뺏으라

10) 김태준, 「문학 유산의 정당한 계승 방법」, 조선문학가동맹 편, 『건설기의 조선문학』, 온누리, 1988, 118쪽.

11) 김윤태, 「해방 직후 민족문학론의 문학유산 계승 문제」, 『한국 현대사와 리얼리티』, 소명출판, 2001, 333쪽.

12) 김기림, 「신념있는 생활」, 『조광』, 1939. 1; 『김기림전집·6』, 132쪽.

내 목소리 무디고 더듬어
그대 앞은 사연 이루 옮기지 못하거덜랑
내 아둔을 채치라
목을 따리라

사치한 말과 멋진 말투
詩의 貴族도 한량도 아니라
그대 그순 얼굴 흠에 튼 팔뚝이 사로워
그대 속에 자라는 새날 목노아 부르리라

—「나의 노래」¹³⁾ 전문

그가 해방을 맞는 당대 민중들의 감격을 노래한 것은 자신의 비평적 견해에 대한 시적 소임을 다하려는 의지의 산물이었다. 이 작품은 해방기를 맞아 김기림이 시가 아닌 ‘노래’를 운위하게 된 배경을 추측케 해준다. 그는 ‘사치한 말과 멋진 말투’를 추구했던 과거의 시작 활동을 반성하고, ‘새날’의 환희를 누리는 민중들의 ‘사연’에 시적 관심을 기울이기로 다짐한다. 자신의 시를 ‘노래’로 규정한 그의 인식 전환은 “고독한 영혼의 독백이 아니라 새 역사를 맨드러가는 민족의 베일래야 베일 수 없는 한토막으로서의 함 사람의 무엇보다도 노래라야 했다”(「새 노래에 대하여」)는 고백에서도 확인된다. 그것은 “어서 새날이 오는 것을 보고 싶다”(「房」)던 그가 ‘빛의 회복’을 맞으려고 준비한 자세이다. 자신이 고대하던 ‘太陽의 風俗’을 현실적으로 구현하게 된 감격은, 정제된 언어로 서술되는 시보다는 ‘노래’로 불러야 제격이다. 김기림은 노래에 반영된 집단적 정서에 주목하고, 해방기의 시대적 정서를 형상화하기에 적합한 장르로 시가 아닌 ‘노래’를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관심이 예로부터 민족의 집단적 정서를 형식화한 시조로 이동하는 것은 어색하지 않다.

아울러 그가 시조 작가들이 귀족계급이었다는 사실을 수시로 비판했던 점을 상기해 보면, 자신을 ‘詩의 貴族도 한량도 아니라’고 선언한 의미를

13) 김기림, 『새 노래』, 아문각, 1948; 『김기림전집·1』, 217쪽.

유추할 수 있다. 일찍이 김기림은 “시조 같은 것을 高調하면서 고전 부흥이라 생각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회고운동에는 반대”¹⁴⁾한 바 있다. 그것은 시조의 귀족성과 언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시조부흥운동을 기화로 역사적 진보의식이 반동적 경향으로 흐를 것을 우려한 것이다. 예컨대, 그가 “시는 일찍이 평민과 타협하기 위하여 귀족적인 「리듬」을 버리고 산문시로 나타난 때가 있었다”(「현대시의 전망」)고 단언한 것에 주목하면, 민중들의 생활과 유리된 시조 작가들의 비민중성과 관념 취향의 시어에 초점을 맞춘 본의를 헤아릴 수 있다. 김기림은 시조 작가층의 확대로 시도된 형식의 파괴를 옹호하면서, 그런 움직임을 장르의 발전을 기약하는 징후로 파악하였다. 곧, 그의 시조론은 시조 장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소산이 아니라, 민중들의 참여를 차단한 작가들의 귀족의식을 비판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또한 그가 ‘그순 얼굴’과 ‘흙에 튼 팔뚝’을 예찬한 것은 ‘나의 노래’가 나아갈 방향을 예정하고 있다.

鄉歌 歌謠 歌辭 時調에

되쳐 되쳐 울리는 그 목소리
강과 호수와 또 비취빛 하늘
가는 곳마다 비취는 얼굴
아— 무시로 내 피부에 닿는 것
귀에 울리는 것 다가오는 것
그는 내 祖國
내 자랑일러라

—「祖國의 노래」¹⁵⁾ 부분

주지하다시피, 그는 모더니즘을 신봉하여 식민지 시대에 카프 계열의 시작품에서 남발되는 집단지향적 성향에 반감을 드러내었다. 그런 김기림이 “불길처럼 일어서며 찾던 백성들의 나라와 꿈”(「다시 八月에」)을

14) 김기림, 「신민족주의 문학운동」, 『동아일보』, 1932. 1. 10; 『김기림전집·3』, 229쪽.

15) 『연합신문』, 1950. 5. 24; 김학동, 앞의 책, 345쪽.

‘노래’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가 ‘조국’을 찬미한 것은 식민지 원주민에서 주권 국가의 국민으로 신분을 회복한 감격의 표현이었다. 해방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자유의 회복을 전제하는 까닭에, 집단의 감정이 사회현상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 김기림이 이 시기의 성과를 가리켜 “8·15 직후에 조선시인이 찾아 얻은 커다란 수확은 공동체의식의 자각”¹⁶⁾라고 규정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대표적인 지성론자였던 그가 ‘鄉歌 歌謠 歌辭 時調’ 등, 민족의 시형식을 거론하며 ‘되쳐 되쳐 울리는 그 목소리’를 발견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그가 이 무렵에 모더니즘을 주창했던 이전의 행보를 유예하고, 재래의 문학적 전통에 관심을 쏟기 시작한 것은 예정된 순서였다. 이런 측면에서 김기림이 시조를 비롯하여 고전까지 포괄하며 설계했던 민족문학의 구도는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민족문학은 아무런 감정도 자기도취도 필요로 하지 않고 현실의 구체적인 역사적·사회적 제 계기에서 제기될 것이며, 일면에 있어서는 특수한 사회적 내용을 가지면서 타면에 있어서는 세계사적 요구의 발현이라고 하여 마땅하다. 즉 문학의 민족적 형식의 완성, 반봉건주의 싸움에 의한 급속한 근대화라는 점에서는 주로 특수한 사회적 내용의 소산이라고 하겠으며, 반제국주의 싸움에 의한 인류의 자유와 세계 평화의 옹호, 반파시즘의 싸움에 의한 문화의 세계성의 완성과 또 진정한 인민적 문학의 수립이라는 세 가지 점에 있어서는 바로 세계사적 사명에도 연결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민족문학의 성격이 아닐까 생각한다.¹⁷⁾

위의 언급에는 “이 시대에 사는 지식계급이 그 독자의 눈을 가지고 사회와 인생을 바라본 그러한 정직한 문학”¹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김기림의 신념이 개입되어 있다. 그가 강조한 ‘일면에 있어서는 특수한 사회적 내용을 가지면서 타면에 있어서는 세계사적 요구의 발현’은 해방 이전부

16) 김기림, 「시와 민족」, 『신문화』, 1947; 『김기림전집』 2, 150쪽.

17) 김기림, 「민족문화의 성격」, 『서울신문』, 1949. 11. 3; 『김기림전집』 3, 158쪽.

18) 김기림, 문학비평의 태도, 『조선일보』, 1934. 3. 25-4. 3; 『김기림전집』 3, 128쪽

터 견지했던 비평관의 반복이다. 즉, 해방기의 시조에 부과된 시대적 과제는 민족적 형식에 보편적 내용을 수용하여 ‘문화의 세계성의 완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것은 김기림이 “선대로부터 물려 가지고 온 우리들의 옛 노래와 현재의 우리들 중의 자연발생적인 노래들 속에 담겨 있는 조선 정조는 과연 조선 역사에 어떠한 감정을 결과했는가”¹⁹⁾라고 회의했던 바를 상기하면 분명해진다. 그는 시조에 담긴 정조와 당대 사회의 유리현상을 지적하면서, 양반층이 독점적으로 향유했던 시조의 ‘결과’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진정한 인민적 문학의 수립’을 위해 척결되어야 할 요소로서, 민족문학의 방향에 대한 질의를 수반한다. 이에 그는 ‘문학의 민족적 형식의 완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조의 현재적 위상을 점검하기에 이른다.

정형시라면 덮어놓고 반발 또는 경멸·타기·조롱하는 것은 오늘의 젊은 시인 또는 젊은 독자 사이에 너무나 깊이 박혀버린 풍속이다. 그것은 「유럽」상징과 운동에서 물려가진 「자유시」라는 생각이 우리 사이에 너무나 뚜렷이 자리잡혀 버린 데서 온 자연스러운 생각이겠다. 오늘 시라고 하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외래 자유시를 일컫는 것으로, 그 대신 정형시라 하면 무슨 화석이라도 대하는 것처럼 다루는 것이 우리의 버릇이다.²⁰⁾

김기림은 시조에 대하여 ‘반발 또는 경멸·타기·조롱’하는 젊은 시인들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나아가 시조를 ‘화석’처럼 대하는 평단의 접근 자세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한다. 그가 ‘자유시’ 외의 시를 인정하지 않는 풍토를 비판한 것은 “8·15 해방 이후 민족의식에 대한 자각과 함께 전통적인 것에 대한 회귀라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관심에서 온 것”²¹⁾이다. 그는 해방기를 맞아 민족의 고유한 문학적 자산을 소생시키는데 관심을 쏟았다. 그는 해방이 “민족적인 관념주의의 고질에서 벗어나는 정신

19) 김기림, 「장래할 조선 문학은」, 『조선일보』, 1934. 11. 14-15; 『김기림전집·3』, 131쪽.

20) 김기림, 「시조와 현대」, 『국도신문』, 1950. 6. 9-11; 『김기림전집·2』, 341쪽.

21) 김학동, 앞의 책, 197쪽.

적인 해방이기도 해야”²²⁾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시기야말로 시조에 내재되어 있는 ‘민족적 관념주의’를 청산할 수 있는 호기로 판단하였다. 이것은 그가 여느 비평가들과 달리 폭넓은 비평적 안목으로 문학사적 전통과 당대의 문학현상을 조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그는 정치적 해방을 맞아 민족문학의 전개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시조의 형식적 특성에 주목하였고, 시조가 지닌 정서의 표현 방식을 발전시킬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납북되면서, 그의 시조론은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중단되고 말았다.

3. 우리 말 운동과 새 문체론

해방을 맞아 각 단체에서는 문맹 상태의 민중에 대한 계몽사업을 급선무로 파악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사업은 선호하는 이념을 초월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범민족적 현안과제였다. 조선어학회는 1945년 8월 25일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활동에 착수하여 같은 해 9월 ‘조선어학회 교재편찬위원회’ 명의로 『중등조선말본』을 편찬하였으며, 조선어학관을 설립하여 국어 강습회를 개최하는 등, 해방기의 특수한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였다. 또 조선문학가동맹은 1946년 2월 9일 조선문학자대회에서 “국어의 재건과 정당한 발전을 위하여 국어 연구와 보급 사업 가운데 뿌리깊이 박혀 있는 국수주의를 배제하고 과학적인 국어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일반 사업에 출선 참가할 것”²³⁾을 명시하였다. 더욱이 문맹퇴치사업은 동맹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문학대중화운동의 성공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였고, 조직의 확대와 세력의 확장에 필수적이었다.

김기림은 이 대회에 보고된 「계몽운동 전개에 대한 의견」에서 문맹퇴

22) 김기림, 「소설의 과거」, 『문학』, 1950. 5; 『김기림전집·3』, 191쪽.

23) 조선문학가동맹, 「제1회 전국문학자대회의 결정서」, 조선문학가동맹 편, 『건설기의 조선문학』, 은누리, 1988, 169쪽.

치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부속 계획으로 ‘계몽운동을 위한 중간적 철자법 연구 제정 기관의 설정’과 ‘문체 평이화의 노력’ 등을 제안하였다. 그의 논지는 “정치 이데올로기를 삼투시키기 위한 기초 공작”²⁴⁾의 성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나, 다른 동맹원들의 그것과는 일정한 변별점을 갖고 있다. 하나는 그의 동맹 참여가 정치적 이념의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해방기를 맞는 지식인으로서의 책무적 성격이 강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그가 민족어로서의 국어에 관심을 갖게 된 시점은 훨씬 이전이었다는 점이다. 그는 해방 전에 “얼마 전부터 내 가슴에 걸려서 아직까지도 잘 내려가지 않는 것은 「민족과 언어」의 문제”²⁵⁾라고 고백하면서, 식민지 원주민으로서의 자기정체성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표백한 바 있다. 식민지 종주국에서 외국문학을 전공한 그에게 국어의 지위를 박탈당한 조선어의 운명은 민족의 처지와 동일시되었던 것이다. 이후에 표명된 김기림의 국어에 대한 안타까움은 시작품에 삼투된 자의식²⁶⁾을 점검하면 확인 가능하거니와, 언어에 대한 관심은 해방기까지 계속되었다. 그의 태도는 동맹원이었던 이태준이 조선문학가동맹의 출범식장에서 이전의 국어관을 철회하며, 국어는 “과학적이라기보다 감상적 애무의 대상”²⁷⁾이라고 자기비판을 결행한 것과 대비된다.

전인구의 약80%가 우리 글을 읽을 줄 모르고 99% 이상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훈련이 아주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오늘의 문학 조선의 한심한 실상에 대해서 우리는 조선의 전지식인의 주의를 환기코져 한다. 민주주의 독립 국가 건설의 기초 공작으로서 우리는 이에 전지식인을 동원하여 일대 문맹 소멸 운동을 급속활발하게 발전하며 아울러 민주주의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그것이 현단계의 조선에 있어서 가진 특수한 현실적 과제에 대한 이해를 인민 대중 속에 널리 삼투시키며, 또 그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적 사고방식에 익숙케

24) 이우용, 『해방공간의 민족문학사론』, 태학사, 1992, 90쪽.

25) 김기림, 「민족과 언어」, 『조선일보』, 1936. 8. 28; 『김기림전집·6』, 126쪽.

26) 이에 관해서는 최명표, 「해방기 김기림의 시에 나타난 자의식」,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39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8. 6, 63-86쪽 참조.

27) 이태준, 「국어 재건과 문학가의 사명」, 조선문학가동맹 편, 앞의 책, 130쪽.

하고 그것을 일상생활화하며 실천화하게 함은 오늘의 조선에 있어서 가장 긴급을 요하는 일이라 하겠다. 이리함으로써만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조선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인민 대중을 가능한 모든 경우의 과시즘의 위협으로부터 방위하는 견고한 정신적 방과제를 인민 속에 구축하는 일이 될 것이다.²⁸⁾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김기림은 ‘인민 대중’의 문맹퇴치를 지식인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는 “민족과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나가며 나아가야 하던 또 나갈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인민 대중이며 인민 대중이야말로 역사적·사회적·현실적 민족의 중추며 공동체의식의 유지자”(『시와 민족』)로서 ‘인민’과 ‘대중’ 등을 구분없이 사용하였다. 그의 용례는 ‘인민’을 “노동자·농민·기타 중산층이나 지식계급층 등을 포섭하는 의미에 있어 이 말 가운데는 피착취의 사회계급을 토대로 한다는 일층 농후한 사회계급적인 요소가 더 많은 개념”(『문학의 인민적 기초』, 『중앙신문』, 1945. 12. 12)이라고 파악한 임화와 차이난다. 임화는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전술상의 목적으로 “통일전선 내에 포함되는 전계급”²⁹⁾으로서의 ‘인민’을 호명한 것이다. 양인의 용례는 해방기의 문단을 응시하는 태도의 구분을 요구한다. 임화에게 ‘인민’은 현단계의 혁명 과업을 투쟁으로 변모시키기에 소용되는 ‘인민’이었지만, 김기림에게는 ‘역사적·사회적·현실적 민족의 중추’로서의 ‘인민 대중’이었다. 김기림의 용례는 과학적 규정이나 계급적 구분에 개념치 않고 용어를 사용하여 동맹원들의 것과 변별된다. 그것은 그가 동맹원들과 현실에 대한 계급적 시각을 공유하지 않은 사실을 반증하며, 그에게는 ‘인민 대중’으로 하여금 ‘민주주의적 사고방식에 익숙케 하고 그것을 일상생활화하며 실천화’하는 것이 관심사였을 뿐이다. 이것은 해방기에 그가 간행한 『문장론신강』의 발간 취지를 “언어학의 한 부면일망정 과연 좀더 쉬운 말로는 서술될 수

28) 김기림, 「계몽운동 전개에 대한 의견」, 조선문학가동맹 편, 위의 책, 146쪽.

29) 서경석, 「미 군정기 민주주의 민족문화론과 인민성의 문제」, 김윤식 외, 『해방공간의 민족문학 연구』, 열음사, 1989, 52쪽.

가 없을까—어려운 한자와 한문투로서만 학문은 기재될 수 있을까—하는 문제를 스스로 힘자라는 데까지는 한번 시험삼아 해결해 보려는 데 있었다”³⁰⁾고 언급한 부분에서도 거듭 확인된다.

따라서 김기림이 ‘어려운 한자와 한문투’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였다. 그는 특히 한자의 기의성에 특별히 관심을 쏟았다. 그것은 한자어에 함의된 관념성과 귀족의식에 주목한 결과이다. 그는 한자어가 함의하고 있는 추상적 개념들이 마술적 힘을 발휘하여 외국의 선진문명을 습득하는데 방해되는 논리를 구축한다고 보고, 양반과 지식층에 의해 사용되는 한자어의 계급적 성격을 비판하였다. 또한 한자어의 남용이 독자의 작품에 대한 접근을 훼방하고, 작가들의 관념 취향을 습관화시킨다고 그가 말한 것은 시조의 귀족적 성격을 비판했던 논조의 연장선상이다. 김기림은 “모든 것이 새로워야 할 때에 우리 말 우리 글도 참말 민주적 민족문화 새 과학과 기술 위에 설 민주주의 조국 건설에 가장 알맞고 능률적인 태세를 갖추고 나서야 될 것”³¹⁾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말 운동’을 제안하였다. 그의 제안은 “구체적 현실에 기초한 것이자 문화의 민주화를 위한 토대를 제시했다”³²⁾는 점에서 유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당면목표를 거느리고 있다.

첫째 문자로서의 한글의 더 넓고 급속한 보급.

둘째 한자어의 정리(여기서 정리라 함은 그저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 피할 수 있는 것과 불가피한 것을 널리 일상 쓰는 말과 학술어·전문어 등에 걸쳐 캐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세째 일어와 일어에서 온 말을 정리할 것.

네째 한문투·일어투를 몰아내고 우리 말체를 확립하는 것.

다섯째 일상 말해지는 구어를 점근선(漸近線)으로 하고 늘 그것에 가까워 갈 것.³³⁾

30) 김기림, 「머리말」, 『문장론신강』, 민중서관, 1950; 『김기림전집』 4, 10쪽.

31) 김기림, 「한자어의 실상」, 『학풍』, 1949. 10; 『김기림전집』 4, 275쪽.

32) 이미순, 『김기림의 시론과 수사학』, 푸른사상, 2007, 240쪽.

33) 김기림, 「새 문체의 갈 길」, 『신세대』, 1949. 3·4 부록; 『김기림전집』 4, 169쪽.

한자를 폐지하는 것은 한글의 국자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국가의 언어 주권과 문화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계기이다. 그것은 귀족계급에 한정되었던 국문 해독자의 범위를 민중까지 확대함으로써, 문맹의 타파라는 현실적 과제를 해결하면서 민중들의 참여 의지를 도출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이 문제를 두고 당시 사계에서는 한자의 전면 폐지론과 점진적 폐지론으로 대치하였다. 전자는 급진적인 순한글운동의 추진으로 배타적 성격을 드러냈고, 후자는 현실적 문제를 인정하여 민중들의 언어 혼란을 최소화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런 판국에 김기림은 우리 말 운동의 준거를 ‘일상 말해지는 구어를 점근선으로 하고 늘 그것에 가까워 갈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언중들의 국어생활을 존중하며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지하였다. 또 그는 “한자 제한에 대하여는 일부의 소아병적 급진적 廢論은 도리어 광범한 의미의 정신적 계몽운동에 저해를 가져올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우선 제한의 가능성에 대하여 어학자와 實家와 손을 잡아 가지고 과학적 기본적 조사 연구기관을 두며, 그러한 준비 아래서 문체의 평이화를 더욱 추진”(「계몽운동 전개에 대한 의견」)할 것을 권고하며, 한자어를 전폐하고 순우리말로 바꾸자는 소위 ‘국어의 순수주의’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태도를 살펴보면, 그는 한자의 폐지로 인해 부족해질 어휘를 보충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언중들의 합의를 우선시한 현실주의자였다. 이것은 그가 민중의 계몽사업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물질적 기반으로 언어에 주목한 사실을 입증한다.

문화의 민주화 또는 민주 문화의 건설은 그러므로 그 전과 방편의 관점에서 말과 글의 문체에 관련해서 아래의 두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해야 할 것이다. 하나, 민주적인 글자 기호의 확립과 또 대중화

둘, 문체의 민주화

하나는 한글의 철저한 사용과 그 보급으로서 해결지를 문제다. 적어도 한자의 힘을 빌지 않고, 한글로 오늘의 문화의 높은 내용을 거리낌없이 다룰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유감이지만 오늘의 우리 어문 생활의 실체는 한문과 국어 혼합시대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할밖에 없다. 이상으로서는 하루바삐 완전한 우

리말 「한글」 상태로 우리 어문 생활을 통일하고 높여야 할 것이다.³⁴⁾

김기림의 ‘민주문화’는 “특권적인 귀족주의적 요소를 완전히 청산한 그 대로 대중의 생활에 뿌리박고 그 속에 퍼져가서 그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그러한 성질의 문화”(「새 문체의 요망」)이다. 그것은 ‘민주적인 글자 기호의 확립과 또 대중화’와 ‘문체의 민주화’를 통해 달성되는 것이어서, 필연적으로 한글의 상용화를 전제한다. 이에 따라 그는 “조선말은 조선인의 표현의 의욕에 가장 알맞은 것”(「시인으로서 현실에 적극 관심」)이라고 주장하면서, 작가들에게 민중들의 높은 문맹률을 고려하여 평이한 문장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그것은 ‘한문과 국어 혼합시대’를 조기에 종결함으로써, 민중의 주체 의지에 의한 ‘민주문화’를 이룩하는 기반이다. 그가 민중들의 문화생산능력을 신뢰하게 된 동기는, 외국어의 조어 과정에 나타난 민중들의 언어능력을 주목한데 있었다. 그는 ‘통조림’과 ‘양담배’ 등을 예로 들면서, 민중들이야말로 “새 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서투른 순수주의자들보다는 사뭇 천재”³⁵⁾라고 호평하였다. 그는 그들의 언어수행능력이 ‘민주문화’의 건설 사업에 필수적인 동력으로 작용하기를 희망했던 것이다. 이것이 그가 민중들의 삶에서 유통되는 기층언어에 관심을 표명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였다. 그는 이른바 ‘상상의 공동체’³⁶⁾를 구성하는 언어에 주목함으로써, 민중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민족공동체의 분열을 막고자 했다. 그러한 노력은 해방 조국에서 민중들이 정치적으로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는 김기림의 충정일 뿐만 아니라, 식민지시대라는 정치적 조건 때문에 민중들에게 소홀했던 비평적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심리적 구속행위의 일환이기도 했다. 비록 ‘민주문화’론이 논리적 체계화를 이루지 못하였으나, 그가 해방기에 진력한 계몽운동의 성격을 담보하고 있는 점은 사실이다.

34) 김기림, 「새 문체의 요망」, 『자유신문』, 1948. 10. 31-11. 2; 『김기림전집』 4, 163쪽.

35) 김기림, 「새 말 만들기」, 『학풍』, 1949. 7; 『김기림전집』 4, 209쪽.

36) Benedict Anderson, 윤희숙 역, 『상상의 공동체』, 나남, 2002.

4. 결론

해방 후 김기림은 ‘민주문화’의 건설 사업을 담당할 주체로 민중을 주목하였다. 그의 지론은 조선문학가동맹의 소위 ‘민주적 민족문화’와 중첩되지만, 양자 사이에는 주체를 비롯하여 몇 가지 층위에서 상이점이 발견된다. 그의 선택은 새로운 국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두될 정치적 주체의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민중친화적이었다. 그가 이 무렵에 주력했던 계몽운동은 ‘민주문화’의 건설에 필요한 민중들의 문화 생산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천 전략이었다. 그의 신념은 민중지향적 시론의 전개, 시조에 대한 관심, 우리 말 운동 등, 세 가지의 강조점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전개되었다. 그가 내세운 논리는 동맹의 것과 마찰하거나 중첩되면서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 선행연구에서 소홀히 취급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김기림의 해방기 활동은 1930년대 초기부터 지향했던 지성과 현실의 상호관련성을 탐색하던 모습의 재현이었다. 그는 당시의 시급한 과제였던 민중들의 문맹 타파를 위해 언어생활에 관심을 표명했다. 그는 한자의 점진적 폐지를 통해 완전한 한글화를 추구했으며, 그것은 국어의 주권을 회복하고 언중들의 국어생활을 효율화하려는 의도였다. 그가 우리 말 운동에 진력하게 된 동기는, 민중들의 문맹 퇴치를 통해서 당대의 과제였던 ‘민주문화’의 건설 과정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하는데 있었다. 아울러 그것은 계몽을 통해서 민중들의 정치적 역량과 문화생산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식인의 고뇌에 기인한 것이다. 그의 노력은 납북이라는 비극적 사태를 맞으면서 중단되었지만, 당대 현실에 토대한 온건하고 합리적인 접근 자세였다. 특히 그가 비평적 관심을 표했던 시조에 관한 논의를 확대하지 못한 것은 시사적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참고문헌〉

〈기본 자료〉

- 김학동 편, 『김기림전집·1-6』, 심설당, 1988.
조선문학가동맹 편, 『건설기의 조선문학』, 온누리, 1988.

〈단행본 및 논문〉

- 김용직, 『한국 근대문학의 사적 이해』, 삼영사, 1982.
김운태, 『한국 현대시와 리얼리티』, 소명출판, 2001.
김학동, 『김기림평전』, 새문사, 2001.
서경석, 「미 균정기 민주주의 민족문학론과 인민성의 문제」, 김윤식 외,
『해방공간의 민족문학 연구』, 열음사, 1989, 45-56쪽.
이미순, 『김기림의 시론과 수사학』, 푸른사상, 2007.
이우용, 『해방공간의 민족문학사론』, 태학사, 1992.
임규찬, 『문학사와 비평적 쟁점』, 태학사, 2001.
최명표, 「해방기 김기림의 시론 연구—우리 시의 방향을 중심으로」, 『한국말
글학』 제17집, 한국말글학회, 2000. 8, 377-395쪽.
최명표, 「해방기 김기림의 시에 나타난 자의식」,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9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8. 6, 63-86쪽.
Anderson, Benedict,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나남, 2002.

Abstract

A Study on Kim Gi-rim's Enlightenment Movement Theory in the Era of Liberation

Choi, Myoung-pyo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Kim Gi-rim's enlightenment movement in the era of liberation. He focused on people, who would be in charge of the construction project of the democratic culture, as a subject. His enlightenment movement theory was developed as a combination of three key point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people-oriented poetics, an interest in a Korean verse, and the Korean language movement.

Kim's activity was the revival of the appearance of seeking a correlation between intellect and reality, which he aimed at from the early 1930s. He hoped to take initiative in the construction project of a democratic culture, which was the pending assignment of the time, by enhancing the people's participation in politics through the defeat of their illiteracy, which was an imminent issue back then. First, he

demonstrated an interest in the lives of the people, and this was carried out as a people-oriented poetics. Second, he saw through the importance of national literary form and consistently expressed an interest in a Korean verse. Third, he pursued the perfect transformation to the Korean language by gradually abolishing Chinese characters that prohibited the desirable lingual activities of the people.

His efforts had to be discontinued in the face of a tragic situation, which was an unexpected kidnapping to North Korea; however, it was a moderate and rational approach and attitude based on an objective perception about the reality of the time.

Key words : democratic culture, enlightenment movement, people-oriented poetics, Korean verse, the Korean language movement

이 논문은 2009년 1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09년 2월 3일에 심사 완료되어 2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